

‘아웅산 사건’의 발생과 영향

: 1980년대 초 북한과 동북아 정세

박아름(동국대학교)

논문 요약

본 논문은 아웅산 사건의 전말과, 발생원인, 그 당시의 동북아 정세, 그리고 실제 북한이 받은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웅산 사건에 대한 기존 추론 중 북한이 전두환 정권을 배제하고자 한 의도가 가장 타당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1981~1985년 시기, 동북아의 양자간, 다자간, 진영간의 모습을 면밀히 살펴 본 결과 화해와 평화를 지향하는 큰 흐름을 보였다. 따라서 1980년대 초반 북한이 처한 고립적인 동북아 정세로 아웅산 사건 발생의 필연성을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마지막으로 아웅산 사건 이후 북한의 대외관계와 경제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찾기 어려웠으며, 국방부문의 변화는 오히려 북한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아웅산 사건으로 북한이 남북한의 체제경쟁에서 뒤처지게 되었다는 평가는 적절하지 못하다.

연구결과 아웅산 사건에 대한 기존의 평가들이 다소 수정되어야 함을 발견하였으며, 1980년대 초반 역동적인 동북아 정세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주제어 : 아웅산 사건, 한-미-일 삼각동맹, 전두환, 김정일, 북한의 테러

I. 서론

이 연구는 1983년 10월 발생한 ‘아웅산 사건’¹⁾을 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1983년 10월 9일 미얀마(당시 버마) 아웅산 국립 묘지에서 폭발사건이 발생하였다. 미얀마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 일정의 첫번째 목적지로, 네 명의 한국 각료와 13명의 고위 관리들이 사망하고 48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두환은 사건 현장에 늦게 도착하여 무사히 한국으로 귀환하고 모든 공식 일정은 취소되었다.²⁾

사건 당일, 사건의 발생과 범인이 북한일 것이라는 정부성명이 발표되었고, 연이은 언론보도로 국민들은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겼다. 당시 사건이 더욱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아웅산 사건이 발생하기 약 한달 전, 소련의 KAL기 격추(대한항공 공여객기 격추사건 1983년 9월 1일)사건이 있었으며, 아웅산 사건이 발생한 당시는 ‘남북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100여일 연속으로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국민들은 북한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바탕으로 증오가 폭발하게 되었다.³⁾

2013년에는 ‘아웅산 사건’ 30주년을 추모하는 의미의 영상물⁴⁾과 단행본⁵⁾이 출간되었다. 리종일의 『아웅산 테러리스트 강민철』⁶⁾은 아웅산 사건 속에서 테러범으로 미얀마에 장기간 수감되었던 주인공 ‘강민철’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1) 남한의 공식용어는 ‘버마 아웅산폭발사건’(출처: 대한민국의교연보)이며, 북한의 공식용어는 ‘랑군폭발사건’(출처: 조선중앙년감)이다. 하지만 학술지와 신문 등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예: 랑군폭발사건, 아웅산테러사건, 랑군폭발사건 등) 사건명에 대해서는 각 매체, 논문이나 자료에서 쓴 형태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2) 최 다운스 지음, 송승종 옮김, 『북한의 협상전략』, 파주: 한울, 1999, p. 244.

3) 아웅산 사건이 발생한 3일 후 『동아일보』 1983년 10월 12일 신문에는 아웅산 사건의 용의자가 붙잡혔다는 소식과, 남북이산가족인 한 남매의 상봉기사(사진포함)가 각각 1면과 9면에 함께 실려있다. “『생포코리아인』 신문요청 복귀의 요원으로 판단 현지 대사관서 보고” “이산가족 상봉-남매가 헤어지자 33년만에 만나.” 『동아일보』 1983년 10월 12일, 1면, 9면.

4) “다큐극장-아웅산 그리고 2013.” 『KBS 1』 2013년 5월 11일 방영.

5) 리종일, 『아웅산 테러리스트 강민철』, 서울: 창비, 2013; 장세동, 『역사의 빛과 그림자(버마 아웅산국립묘지 폭탄테러사건)』, 서울: 맑은샘, 2013; 박창석, 『아웅산 다시 보기』, 서울: 백산출판사, 2013.

6) 리종일, 『아웅산 테러리스트 강민철』, 서울: 창비, 2013, p. 10.

분단 상태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각심과 반성을 불러 일으켰다. 다른 매체의 내용은 아웅산 사건의 사건 일지와, 남한의 피해 및 충격, 그리고 북한이 겪은 국제적인 고립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학술적으로 아웅산 사건을 단독으로 삼은 연구물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남북관계 및 북한의 테러행위 중 하나의 사건으로 부분적인 평가가 존재한다.

단편적인 평가들의 공통점은 첫째, 아웅산 사건의 발생은 필연적이며, 둘째, 아웅산 사건으로 인하여 북한은 국제적인 고립에 처했고, 셋째, 아웅산 사건 이후 북한의 모습 -3자회담 제안, 합영법 제정, 남북대화시도 등-은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가에 대한 정밀한 분석 등의 검토를 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 아웅산 사건 이후 북한이 겪은 상황은 기존의 평가들과 불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국제적으로 일시적인 비난이 쏟아지기는 했지만, 북한의 대외 관계와 대외무역은 큰 부침을 겪지 않았다. 또한 사건 전후를 둘러싼 북한과 주변국들의 모순적 행동은 기존의 평가로 이해할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 그 이유는 1980년대, 사건의 충격과 함께 국제냉전체제 속의 한반도 분단현실이 작동했을 것이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의 평가들도 1980년대 당시 국토통일원의 분석을 그대로 재언(7)하거나 탈북자 황장엽의 증언을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아웅산 사건이 발생한 1980년대의 동북아 정세와 북한이 겪은 실제적인 영향은 무엇이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1980년대 초는 1970년대의 데탕트 시기가 전환되어 ‘신냉전’적 분위기가 도래하면서, 이에 북중소와 한중일 삼각동맹의 변화과정이 흥미롭다.

본 연구는 문헌분석을 이용하여 아웅산 사건의 발생 배경과 원인, 실제적인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용된 자료는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작간접적으로 아웅산 사건과 관련된 문헌으로, 정부성명, 언론보도, 학술잡지, 단행본, 연구기관 발표자

료 등을 망라한다. 또한 남한의 자료 뿐만 아니라 북한의 자료도 포함하였으며, 아웅산 사건이 발생한 1983년 전후인 1980~1985년 시기를 집중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아웅산 사건에 대한 기존의 평가들에 대한 특징을 정리한 후, 근거자료를 이용하여 평가의 한계성을 밝힌다. 둘째, 1980년대 동북아 정세를 양자 간과 다자간의 관계 속에서 다각도로 분석하여, 아웅산 사건의 필연성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셋째, 아웅산 사건 이후 북한이 국제적인 고립에 처했다는 평가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한다.

아웅산 사건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은 1980년대 초의 남북관계와 동북아의 역동적인 정세를 쉽고, 깊게 이해할 수 있는 표석이 될 것이다.

II. 아웅산 사건의 전말과 평가

1. 아웅산 사건의 전말

1983년 10월 8일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전두환은 공식 수행원 22명, 비공식 수행원 등을 데리고 동남아 5개국의 공식 순방길을 출발했다. 미얀마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순방길의 첫 방문지였으며, 이 날은 미얀마의 독립운동가 아웅 산의 묘소에서 참배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10월 9일, 부총리 서석준을 비롯한 수행 공무원들과 경호원들은 행사 준비 및 예행연습을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인 오전 10시, 전두환은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출발한다. 예행연습을 끝내고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를 한 서석준을 비롯한 수행원들은 오전 10시 26분에, 전두환 측근으로부터 무전을 통해 "차량 정체로 인해 전두환 대통령이 약 30여 분 뒤에 지연도착" 한다는 연락을 받고 한 번 더 애국가 예행연습을 한다. 그런데 미리 대기해 있던 폭탄테러 용의자중 1명인 신기철은 전두환 대통령이 오전 10시30분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첩보를 통해

7) 윤해수는 아웅산 사건에 대해, 국토통일원에서 1984년에 발간된 북한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윤해수, 『북한 국제외교론』, 서울: 한울, 2000, pp. 159~160.

과악한 상태였고 예행연습 중에 나온 음악을 듣고 전두환이 도착했다고 착각하여 오전 10시 28분에 미리 설치해 두었던 폭탄을 터트린다. 이 폭발로 예행연습 중이던 경제부총리 서석준과 수행공무원 기자를 포함하여 17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한다. 전두환은 차량정체로 인해 애당초 도착예정인 10시 30분에서 30분 뒤인 11시에 도착했다. 이후 전두환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귀국한다.

남한 정부는 1983년 10월 9일 아웅산 사건이 발생한 당일, 즉시 이 사건을 '북괴의 소행으로 발표하였다.⁸⁾ 또한 언론매체들도 연일 이 사건의 잔혹성과 피해 규모를 생생하게 전달하였으며, 북한을 '천인공노할 악의 집단'으로 규탄하였다.

미얀마 정부는 사건발생 즉시 5인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암살범 추적수사에 총력을 기울여 10월 11일과 12일 사이에 북한에서 온 강민철과 진 모 등 2명을 체포하고 1명을 살상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얀마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조사단을 현지로 파견(10월 11일)하여 공동 수사를 전개하고, 10월 13일 『아웅산 사건보고서 (1983. 10. 13)』⁹⁾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이 이 사건의 범인이라는 정황과 증거물, 그리고 북괴의 최근 행동을 근거로 "이미 언급한 사실과 자료들에 의하면 순국열사 묘소의 폭파계획이 이미 북괴에서 매우 세부적으로 수립되었다는 사실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자신들의 폭력 혁명 전략을 위해 북괴는 이국땅에서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할 만큼 끔찍하고 야만적인 살인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전두환은 아웅산 사건에 대해 '전쟁'까지 갈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본인이 이를 억제했음을 회고하였다.¹⁰⁾

미얀마 당국도 10월 17일 수사 중간발표, 11월 4일 수사 결과발표를 하였다.

8) 아웅산 사건 당일 정부는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천인공노할 북괴의 국제테러 만행집단의 본성을 다시 한번 폭폭히 알았습니다." 『버마 암살폭발사건에 관한 정부성명 (1983년 10월 9일 서울)』, 외무부 국제기구 조약국 외교사료과, 『대한민국 외교연표』, 서울: 외무부 국제기구 조약국 외교사료과, 1984, p. 186.
 9) 상·후쿠오 지, 남현옥 옮김, 『아웅산-피의 일요일』, 서울: 병학사, 1985, pp. 242~246 참고.
 10) 박철언은 "전두환 대통령은 1983년 아웅산 사건 직후 우리 군부 내에서 전쟁 주장이 강했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은근히 내비쳤다"고 회고하였다. 박철언, 『백년역사를 위한 증언』, 서울: 랜덤하우스중앙, 2005, p. 174.

미얀마 당국은 중간발표에서 용의자에 대해 '코리안'이라는 단어를 사용¹¹⁾, 아직 북한이 범인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나, 11월 4일 수사 결과발표를 통해 폭발물을 설치한 주범이 '북한'의 지령을 따른 북한공작원임을 공식 발표하였다. 미얀마의 공식발표를 기점으로, 북한은 해외 여러 여론에서 비난에 휩싸였으며, 오랜 우방이었던 미얀마에게 단교조치를 당하였다.¹²⁾ 또한 미국과 일본을 대표로 하는 나라들에게 제재조치를 당하였다.¹³⁾

반면, 북한은 사건 발생 초기에는 범행을 일체 부인하다가, 10월 17일 미얀마의 수사 중간발표 이후 아웅산 사건에 대하여 일관되게 '전두환의 자작극'임을 주장하였다. 북한은 남한과 미얀마의 수사 모든 과정과 증거물에 부적절함과 불충분함을 지적하고, 특히 전두환만 살아남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임을 강조하였다.¹⁴⁾

2. '아웅산 사건' 평가의 특징과 한계

아웅산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한 추론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 내부의 강온파의 갈등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이다. 둘째, 전두환 정권의 비민주적 설립 배경으로 인해 북한정권이 대화의 상대를 바꾸고자 했다는 것이다. 셋째는 1980년대 동북아 정세와 남한의 경제성장은 북한이 도발하도록 자극했다는 것이다.

첫 번째, 허문영은 북한의 외교결정 정책과정에 대해 1980년대 당정 갈등적

11) "장교 끝의 공표 '코리안 범행' 버마의 아웅산 폭발 수사 중간발표." 『동아일보』, 1983년 10월 18일, 3면.
 12) 버마 정부는 랭군 주재 북한 외교사절에 대해 4일 오후 1시부터 48시간 이내에 버마를 떠나도록 명령했다. "북한에 대한 버마의 단교 성명서 (1983. 11. 4)" 상·후쿠오 지 남현옥 옮김, 『아웅산-피의 일요일』, 서울: 병학사, 1985, p. 247.
 13) 아웅산 사건 직후 북한과 단교한 나라는 코스타리카·코모로·서사모아 3개국이며, 호주·뉴질랜드·브루나이·필리핀·도미니카공화국·프랑스·네덜란드·서독·오만·아랍에미리트 등 10개국은 대북한 수교불가 원칙을 재천명했다. 그리고 공식 규탄성명을 발표한 나라는 미국·호주·일본·뉴질랜드·캐나다 등 25개국에 달했다. 또한 유엔총회의 제6분과 위원회에서 45개국에 달하는 나라들이 북한을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 박창석, 『아웅산 다시 보기』, 서울: 백산출판사, 2013, pp. 149~155.
 14) "어떠한 날조로써도 진상을 감쌀 수 없다." 『로동신문』, 1983년 10월 18일, 4면.

다원주의 모델을 하나의 가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시각에 따르면 북한의 통치엘리트들은 보수강경파와 온건개방파로 나뉘져 대립하고 있다. 최고지도자는 이들 가운데서 절충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980년대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과정에서 폐쇄성향과 개방성향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은 파벌대립을 반영이라는 것이다. 이 시각에 기초한 학자들은 북미 핵협상의 지지부진 이유로서 핵개발을 고집하는 강경군부와 경제침체 탈피를 주장하는 온건 기술관료들 사이의 긴장을 들고 있다.¹⁵⁾

다른 한편에서는 1980년 '당중앙'으로 공식적인 후계구도를 마친 김정일이 모험주의적 성향을 발현하여 김일성과 갈등을 드러냈다는 가정이다.¹⁶⁾ 북중관계에서 중국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지지했던 김일성과 달리, 김정일은 노동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7차 전원회의(1983년 6월 15~17일)에서 "이제 중국공산당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 버렸고, 존재하는 것은 수정주의의 노선이라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중국의 정책을 맹렬하게 비난했다.¹⁷⁾

1984년 허담이 대남사업에 공식적으로 등장하면서 북한의 전략이 강경에서 온건으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있으며, 김정일은 1984년경부터 외교정책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⁸⁾ 당시 전두환도 아웅산 사건을 겪은 후 북한이 대남정책에 있어 온건노선으로 전환되었음을 언급하였다.¹⁹⁾ 또한 북한의 대외관계 결정과정의 변화를 종합하여 볼 때, 강온파라는 파벌은 있으나, 김일성과 김정일의 대립으로 아웅산 사건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론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 북한은 아웅산 사건 하루 전날인 10월 8일 3자회담을 제안하였는데,

15) 허문영, 『북한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 31.
 16) 伊豆見元, "최근의 북한 정세 - 두 개의 얼굴인가, 두 개의 머리인가." 강석호 엮음, 『80년대의 주변정세 -미·중·소의 전략적 삼각관계와 한반도의 대명뜨-』, 서울: 거름, 1985, p. 153.
 17) 오진용, 『김일성시대의 중소와 남북한』, 서울: 나남출판, 2004, p. 106.
 18) 허문영, 『북한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p. 61~62.
 19) 박철언, 『바른역사를 위한 증언』, 서울: 랜덤하우스중앙, 2005, p. 180.

이러한 모순적으로 보이는 북한의 모습이 전두환 정권에 대한 기존입장으로 이해되어 질수 있다는 가정이다.²⁰⁾ 아웅산 사건이 발생하기 전, 북한은 박정희 대통령 사후 남한과의 대화를 제안하였지만, 전두환 정권이 성립되자 이를 취소하였으며, 이후 전두환 정권의 지속적인 대화제의를 모두 거절한다.

북한이 이러한 태도를 갖게 되었던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제5공화국의 성립과정이 지극히 비정상적이었던 점이다. 구체적으로 80년 5월 광주사건을 들어 '동포를 살육한 피투성이 정권이다'라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며, 또한 동포에게 총부리를 들였고 동포의 희생 위에 성립된 정권이기에 때문에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현 정권과는 대화할 수 없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었다.²¹⁾

1980년도 사건을 정리한 북한의 『조선중앙년감 1981』은 전두환 정권의 성립과정('12·12 군사반란')부터, 특징,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열일곱 면에 걸쳐 자세하고 격렬하게 비방하고 있다. 대표적인 주장은, 전두환 정권이 미국의 배후조종으로 탄생했다는 것, 박정희 정권 때보다 인민에 대한 탄압이 더욱 심각해 졌다는 것(언론탄압, 헌법개정, 국가보안법 강화, 집회와 시위에 관한 개정법, 군사독재기구의 재편성 등), 광주인민들에 대해 전두환은 살육에 가까운 '인간 백정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²²⁾ 이후로 북한은 『조선중앙년감』 각 년도마다 전두환 개인과 전두환 정권에 대한 비방을 지속적으로 신고 있다.

따라서 북한정권이 1980년대 들어 개혁개방을 지향하고, 동북아의 데탕트 분위

20) 伊豆見元, "최근의 북한 정세 - 두 개의 얼굴인가, 두 개의 머리인가." 강석호 엮음, 『80년대의 주변정세 -미·중·소의 전략적 삼각관계와 한반도의 대명뜨-』, 서울: 거름, 1985, p. 152.
 21) 伊豆見元, "북한의 3자회담 제안과 주변 관계국의 대응-미·중·영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강석호 엮음, 『80년대의 주변정세 -미·중·소의 전략적 삼각관계와 한반도의 대명뜨-』, 서울: 거름, 1985, p. 155.
 22) 해당 본문의 주요 제목들은 다음과 같다. '미제강점하의 남조선 '전두환' 력도의 정권강탈행위' '《212숙군 쿠데타》' '517파쇼폭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파쇼적립법기구 《국가보위법회의》' '파쇼탄압만행' '군사독재기구의 재편성' '파쇼살인악법의 조작' '헌법개정' '《집회와 시위에 관한 개정법》' '《사회보호법》' '《국가보안법》' '《행법개정안》' '광주인민들에 대한 대학살만행' '동족대살륙작전' '치명리는 학살만행' '제2의 광주살륙작전' '《김대중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탄압만행' '사건의 날조' '악착한 고문' '암흑재판' '광주대학살만행의 장본인은 미제' '언론탄압'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81』,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1, pp. 330~346 참조.

기에 편승하고자 화해의 제스처를 계획했다고 가정해도, 전두환 정권과의 직접적인 대화나 협력은 자기 모순적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했을 것이다.²³⁾

세 번째, 1980년대 들어서면서, 남한은 남북한 간의 체제우위 경쟁에서 북한을 현저히 앞지르기 시작했는데, 북한이 특히 남한의 국제적 지위 상승을 막고자 아웅산 사건을 일으켰다는 가정이다. 이러한 평가는 1983년 사건 당시 국토통일원의 분석²⁴⁾이었으나, 이후에도 다른 근거나 자료 없이 비슷한 평가가 이어져 오고 있다.²⁵⁾ 김계동도 아웅산 사건의 배경에 대해 동북아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북방정책의 추진, 한미관계의 공고화, 남북한의 GNP격차, 남한의 국제적 지위 상승(86아시안게임 유치, 88올림픽 유치)등으로 분석하고 있다.²⁶⁾

이러한 평가에 대해 일본연구원 이즈미 하지메(伊豆見元)은 1980년대 동북아 정세와 남한의 국제적 행사 유치 등이 1983년 10월 9일 당시 북한으로 하여금 아웅산 사건까지 일으키도록 자극을 주었을 거란 평가에 의문을 제시한다. 그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1988년 올림픽까지는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으며, 1983년 서울에서 열린 IPU총회는 소련의 불참이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²⁷⁾

1983년에 서울에서 IPU총회가 개최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1983년 7월 2일부터 6일까지 '반제, 친선, 평화를 위한 세계기자대회'가 평양에서 진행되었으며, 대회에는 세계 5대륙의 118개국, 17개의 국제기구에서 온 169개 대표단과 대표들의 참가하였다.²⁸⁾ 9월에는 '제1차 빨리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의 교육 및 문화부장 회의'를 평양에서 유치했으며, 75개 국가와 민족해방단체 대표단, 20개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가했다.²⁹⁾

23) 최명해, 『중국-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서울: 오름, 2009, pp. 350~351.
24) 국토통일원 교육홍보실, 『시사자료 통일안보교육 제10집(1983. 12)』, 서울: 국토통일원, 1983, pp. 84~85.
25)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 엘리트』, 서울: 선인, 2007, p. 147.
26)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 서울: 백산서당, 2003, pp. 211~212.
27) 이즈미 하지메, 『최근의 북한 정세 - 두 개의 얼굴인가, 두 개의 머리인가.』 강석호 역음, 『80년대의 주변정세 -미-중-소의 전략적 삼각관계와 한반도의 데탕트-』, 서울: 거름, 1985, p. 152.
28)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84』,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4, p. 365.
29) '위의 책', p. 204.

실제, 한국은 1960년도 16개국과 수교로 북한과 동일한 숫자의 수교를 기록한 후, 현재까지 한 번도 수교국 경쟁에서 뒤쳐진 적이 없다. 이후, 남북한 양국 모두 수교국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남한이 북한보다 늘 더 많은 수의 수교국을 기록하였다.³⁰⁾ 또한 경제력 격차도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발생하여 1980년대 초반 갑자기 위기감이 증폭되었다고 설명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표 1> 참고).

< 표 1 > 남북한 GNP와 1인당 GNP

		1957	1960	1964	1970	1972	1975	1980	1987
GNP (억달러)	남한	16.7	19.5	28.8	79.9	105.7	208.5	603	1,284
	북한	9.4	15.2	23.0	39.8	46.2	93.5	135	194
1인당 GNP (달러)	남한	90	94	107	248	316	591	1,589	2,826
	북한	85	137	194	286	316	579	758	936

출처: 박순성, 『남북한 경제의 비교: '기원'에서 '위기 이후'까지,』 『社會科學論集』 제33집, 2003, p. 112.

위의 내용을 통해 아웅산 사건 발생원인에 대한 가정에서 두 번째 가정을 제외한 첫 번째, 세 번째 가정은 타당성이 미약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웅산 사건 이후 북한의 행동이 국제적인 고립에서 탈피하고자 노력한 결과라는 평가 또한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III. 1980년대 초 동북아 정세

1970년대 말 중국과 미국의 수교(1979년 1월 1일), 중국과 일본의 평화우호조

30) 1948년부터 2013년까지 남북한의 수교국 현황을 하나로 표로 확인할 수 있다. 『e-나라지표』 『남북한 수교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77 (검색일: 2014.7.4).

약체결(1978년 8월)은 동북아의 화해모드를 불러왔지만, 실제 다자간, 양자간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존재하였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진영 간의 화해와 진영을 넘어서는 화해모드가 조성되었고, 동북아에서 북한의 행보가 주목되었다. 특히 1980년대 초, 미국, 소련, 중국, 일본, 남한의 지도자 교체와 김정일의 후계자 공식등장은 '신냉전³¹⁾' 도래의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아웅산 사건이 발생한 1983년 전후인 1981년부터 1985년까지의 동북아 정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한·미·일 삼각동맹 공고화(1981~1983년)

1980년 한국에는 군부출신 '전두환 정권'이 등장, 1981년 미국에는 공화당 출신 '레이건 정권'이, 1982년 일본에는 친미성향으로 평가받는 '나카소네 정권'이 등장하였다. 삼국의 새로운 정권의 등장은 이전까지 각기 양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삼국이 안보·경제·정치면에서 관계를 공고히 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한-미 관계의 회복을 시작으로, 미-일 관계 개선, 그리고 한-일 관계 친밀화는 한-미-일 삼각체제를 완성시켰다. 중요 고리는 '안보'문제로 소련과 북한을 고립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실제 이 기간 동안 3국의 군사비 지출은 모두 상승하였다.³²⁾

1980년대에 들어 한미관계는 급속한 진전을 이루게 된다. 1981년 1월 20일 미국의 카터 대통령 퇴임과 레이건 대통령의 취임 다음날인 21일, 전두환의 방미가 확정 발표되었고, 2월 3일 전두환은 미국을 방문하였다. 원래, 전두환 정권에 대하여 경제 제재를 고려했던 미국은 김대중의 사형철회라는 조건과 한국의 경제제재가 향후 미국과 일본에 불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전두환의 방미를 공식 승인하였다.³³⁾

1981년 2월 2일 총 14개항에 달하는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었고 당시 현안이었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다. 국내 언론은 전두환 레이건 공동성명에 대해 박정희 카터 공동성명과 다른 한-미관계가 성립되었음을 환영하는 기사를 신기도 하였다.³⁴⁾ 이 후 한미 양국은 커다란 부침을 겪지 않고, 친밀하고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미국은 전두환이 스키 내각으로부터 거절당한 경제차관이 이루어지도록 공조해 주었으며, 남한이 주장한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군사 원조와 전력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였다(<표 2> 참고). 아웅산 사건이 발생한 다음해인 1984년에 미국은 한국에 대해 종래의 '중요한 이해관계 지역(a significant interest area)'에서 '사활적 이해관계지역(vital interest area)'로 격상시키고 '방위의 제1선(the first line of defence)'으로서 서유럽과 동등한 중요성을 부여하였다.³⁵⁾

31) 박영대는 냉전체제에 대해 4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제1기, 냉전체제의 성립기(1945~1955), 제2기, 냉전체제의 다극화 시기(1956~1970), 제3기 냉전의 해빙기(1971~1979), 제4기 제2의 냉전기(1979~1989). 따라서 1980년대 초반을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는 시기로 '신냉전'으로 명명하고 있다. 박영대, "한국의 1980년대 초반 외채위기 극복요인에 관한 연구: '신냉전'의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pp. 66~67.

32) 레이건의 첫 임기 동안 방위비 지출은 1,990억 달러에서 2,640억 달러로 32% 증가했다. 이것은 평화시기에 조성된 것으로서는 유례가 없던 것으로 미국 총 GNP의 5.2%에서 6.6%로 증가한 것이었다. 빅터 D. 차 지음, 김일영문순보 옮김, 『적대적 제휴: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체제』, 서울: 문화와 지성사, 2004, pp. 264~265. 일본은 심각한 재정난과 국내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982 회계연도 예산에서 국방비 지출을 7.75% 인상했으며 5개년 국방강화계획(1983~1987)을 채택하여 미국과 상호 군사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공해군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노만 램, "1980년대 동아시아 정세와 한미 안보관계." 강석호 엮음, 『80년대의 주변정세 -미중소의 전략적 삼각관계와 한반도의 데탕트』, 서울: 거름, 1985, p. 25.

33) 고나무, 『아직 살아있는 자 전두환』, 경기: 북룸마, 2013, pp. 183~191 참조.

34) "한미정상 공동성명." 『동아일보』 1981년 2월 3일자, 3면.

35) 선종률, "남한의 군비경쟁 양상 변화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 69.

< 표 2 >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개최 현황(제1차-10차), 1978-1988

구분	일자	장소	양국대표(합참의장)		주요내용
			한국	미국	
제2차	1979.10.17	서울	김종환 대장	존스 대장	한반도 전쟁억제 위한 전력증강 및 작전계획 발전, 한미연합사 발전방향 등 논의
제3차	1981.4.28	샌프란시스코	류병헌 대장	존스 대장	
제4차	1982.3.29	서울	윤성민 대장	존스 대장	연합방위력 증강 위한 한미 공동노력, 대북응징보복계획 발전, 북한 침투위협 및 대화확진 능력 강화 방안 등 논의(강조 필자)
제5차	1983.4.13	워싱턴	김윤호 대장	베시 대장	
제6차	1984.5.7	서울	이기백 대장	베시 대장	
제7차 ³⁶⁾	1985.5.6	워싱턴	이기백 대장	베시 대장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보장하기 위한 감시자산 추가배치, 항모전투단 전개 등 군사지원대책 협의, 미국의 지속적인 핵우산 보장 재확인.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60년사』, 서울: 국군인쇄창, 2013, p. 417.

나카소네 정권은 1982년 11월 26일에 발족하여 1987년 11월 6일에 이르기까지 5년간에 걸친 전후 세 번째 긴 장수정권이었다. 나카소네 신임 수상은 정권을 발족시키자마자 흔들림 없는 미일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는 외교를 펼쳤다.³⁷⁾ 일본의 방위 증강과 세계정세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던 나카소네는 레이건에게서 반공주의 사고를 지니고 있는 동지로서의 보수적 지도자상을 발견했다. 일본방위청의 5개년 방위계획(1983~1987)에 따라 일본은 방위 예산을 7% 증가시켜 총방위비 지출이 GNP의 1%가 되었다. 즉 일본은 1%로 규정된 최고한도까지 방위 예산을 증가(이는 전두환이 주장했던 바이기도 하다)시켰다. 1983년

36)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은 1978년 7월 27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총38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대부분은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열렸으며, 예외적으로 1980년도와 1998년도 열리지 않았고, 1999년에 두 번, 2011년에 세 번, 2013년에 두 번 열렸다.

37) 마코사키 우케루 지음, 양기호 옮김,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서울: 메디치미디어, 2013, pp. 290-305.

나카소네는 일본군사기술의 미국 이전을 승인하기 위해 일본 국내법을 개정했고, 후에 일본 자위대는 미국에 대한 지원에도 참여했다. 또한 나카소네는 미일 간의 정보 공유를 확대했고, 주일미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³⁸⁾

한국과 일본은 상호관계의 발전과 동시에 양국 관계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을 경험했다. 1982년까지 한일 정부간 경협외교는 전두환 정권과 일본 스즈키 내각에서 외교교섭은 격렬하게 진행되었으나 원조이념과 경협금액의 합의에 실패하여 교섭타결을 실현시키지 못했고, 차기 내각인 나카소네 내각기에 집중적인 공개 및 비공개 외교교섭을 통해 합의를 보게 되었다.³⁹⁾ 1983년에 양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1984년에 히로히토 천황은 과거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해 역사적인 공식 사과를 했다. 이 시기 동안 양국은 전례 없는 40억 달러의 차관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경제적 상호의존을 증진했다.⁴⁰⁾ 많은 이들은 양국의 관계 발전을 지켜보면서 한일 상호관계에 새로운 협력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⁴¹⁾

나카소네는 1983년 1월 11일 일본총리로는 사상 처음 한국을 방문했고, 1월 17일에서 19일 미국을 방문한다. 1983년 6월 27일 11월 초 레이건이 전두환의 초청으로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되었다. 실제 레이건 대통령은 4일간 일본을 먼저 방문한 직후 1983년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 간 한국을 방문하였다.⁴²⁾ 이렇듯, 한-미, 미-일, 한-일 관계 개선으로 공고화된 한미일 삼각관계는 1983년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과 ‘북한의 아웅산 사건’으로 더 적극적인 ‘힘의 의한 평화’를 구축해 나간다.

38) 빅터 D. 차, 위의 책, pp. 274-275.

39) 손기섭, “한일 안보경협 외교의 정책결정: 1981-1983년 일본의 대한국 정부차관” 『國際政治論議』 제49집 1호, 2009, p. 306.

40) 일본이 빌려준 총 40억 달러라는 수치는 당시 한국의 순 외채의 13%, GNP의 5% 이상, 1983년 총투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 한국의 신인도에는 큰 도움을 주었다. 박영대, “한국의 1980년대 초반 외채위기 극복요인에 관한 연구: ‘신냉전’의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p. 100.

41) 빅터 D. 차, 위의 책, pp. 262-263.

42) “4일간 나서 머문뒤 12일 서울에 레이건 韓日 방문 登程.” 『매일경제』 1983년 11월 8일자, 1면.

2. 북·중·소 관계의 재정립(1982~1984년)

1980년대 접어들기 전 중국은 이미 미국 및 일본과 수교한 상태로, 북한 및 소련과 다른 길을 걷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개방정책에 대해 북한은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해 왔으며, 북-일 관계 개선의 의지를 내비치기도 하였다. 반면, 1960년대 중국과 소련은 이념분쟁부터 국경분쟁까지 거치며, 냉각 일로를 지속했으나, 1982년 화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⁴³⁾ 1983년부터 북-소 관계도 증진되어 1984년 5월, 김일성은 23년만에 소련을 방문하게 된다.

중국의 현대화와 자유진영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북한의 생각은 김일성이 한 인터뷰와 중국에 대한 입장을 실은 <조선중앙년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일성은 1978년 10월 21일 일본 정치이론잡지 《세카이》 편집국장과의 한 담화에서 냉전 시대가 끝나가는 국제적인 정세와 중국과 일본의 평화우호조약 체결을 매우 좋은 일이라고 평가⁴⁴⁾하고 있다. 한편으로 북-일 간의 관계 개선도 희망하고 있음을 내비치기도하였다.⁴⁵⁾ 1980년대 들어와서도 북한은 중국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의 입장을 보였는데, 양안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였음⁴⁶⁾은 물론이고, 양국 고위인사 교류 때 마다 양국 관계의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고 날로 증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⁴⁷⁾

43) 이정남은 중러 관계에 대해서 동맹관계 시기(1949~1958년), 중소분쟁 시기(1959~1982년) 국교정상화 시기(1982~1991년)로 구분하고 있다. 이정남, “중러관계,” 한국국제정치학회 중국분과 편, 『중국-현대 국제관계』, 서울: 오름, 2008, p. 78.

44) “일본 정치이론 잡지 《세카이》 편집국장과의 한 담화(1978년 10월 21일).”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79』,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9, pp. 73~77.

45)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국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82년 12월 3일).”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83』,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3, pp. 80~81.

46) “화국방동지를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하신 연설(1978년 5월 7일).”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79』,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9, p. 9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중화인민공화국 공식 국가방문을 환영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차린 연회에서 한 연설(1982년 9월 16일).”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83』,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3, pp. 96~97.

4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위하여 등영초동지가 차린 연회에서 하신 연설(1979년 5월 31일).”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80』,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0, p. 36; “중국 신화통신사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1981년 4월 23일).”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82』,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2, p. 8;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의 우리나라 방문.”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중국의 군사비 지출 감소⁴⁸⁾와 경제성장 우선정책은 소련과의 오랜 갈등관계를 해소 가능하게 만들었다. 중소 관계가 화해를 향해 미세한 대동을 개시한 것은 1982년의 일이었다. 동년 1월, 중소 우호협회 부회장인 체프빈스키 소련외교대학원장이 돌연 북경을 방문하여 중국의 요인들과 일련의 회담을 가졌다. 더욱이 3월에는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 브레즈네프가 타시켄트에서의 연설을 통해, “우리는 ‘2개의 중국론’을 한 번도 지지한 적이 없다”라는 등, 4개 항목에 걸쳐 대중국관계 개선을 호소함으로써 크레믈린 관찰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중국 외무성은 브레즈네프의 타시켄트 연설이 나온 지 불과 48시간 후에 “브레즈네프의 연설에 유의한다”라는 이례적인 담화를 발표하였다. 또한 중국은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형성한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수정하여 1982년 9월 “독립자주의외교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동맹을 맺지 않고, 대립을 추구하지 않고,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3불(不)원칙을 제시하였다.⁴⁹⁾

브레즈네프의 사망 후 체르넨코 서기장은 1984년 김일성을 소련에 초청하였다. 1984년 5월 김일성의 소련 방문은 23년만의 일로, 이후 북-소 간에는 ‘국경 조약’, ‘경제협력’, ‘군사원조’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었다.⁵⁰⁾

1985년 4월 17일 모스크바에서는 김영남 외교부장과 그로미코 외장사이에 이 새로운 ‘국경선 확정’에 관한 조약과 ‘영사협정’이 체결되었다.⁵¹⁾ 이 조약에 따라 양국은 경제·군사적으로 상대국 영토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북한은 DMZ-북한측 좁은 회랑(回廊)에 대한 소련의 비행권을 부여했는데, 이것은 김일성의 모스크바 방문시 체르넨코와 김일성이 결정한 것을,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합의를 본 후 국경조약을 체결한 것이다.⁵²⁾

1984』,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4, p. 158.

48) 1979년도 군사지출비는 222억원으로 총예산의 17.4%를 차지하던 것이 1980년에는 139억원, 16.9%이며, 1981년에는 152억원, 15.6%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었다. 이는 실제로 중국의 군사비지출이 3년 만에 거의 1/3까지 감소되었음을 의미한 것이다. 프랑소와 주아이요 저, 李昌訓 譯, 『중국의 대외정책』, 서울: 탐구당, 1989, pp. 151~152.

49) 김홍규, “중미관계,” 한국국제정치학회 중국분과 편, 『중국-현대국제관계』, 서울: 오름, 2008, p. 53.

50) 오진용, 『김일성시대의 중소와 남북한』, 서울: 나남출판, 2004, p. 140.

51) “우리나라와 소련사이의 국경선통과에 관한 조약과 영사협약 체결.” 『로동신문』 1985년 4월 19일, 3면.

1985년 12월 북한은 소련과 1986~1990에 걸친 기간 동안의 무역 및 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협약에 따르면, 양국은 해당기간동안 교역액을 과거 5년간에 비해 2.7배 증가시키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과 소련간의 교역은 증가했으며 북한의 무역에서 소련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4년에는 34%에 불과했던 것이 1987년에는 50%를 상회하게 된다.⁵³⁾ 또한 북한의 오랜 바람이었던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도 경제기술적 협조에 대한 협정이 맺어졌다.⁵⁴⁾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항하기 위한 북-소 간 상호 군사지원 협정도 맺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소련이 북한의 끈질긴 요구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던 신예기 MIG-29을 제공했다는 사실이다. MIG-29는 수출용으로서 소련 보유형에 가장 가까운 최신형 모델이었다. MIG-29공여조건은 대부분 무상원조였다. 스탈린 집권기를 연상시키는 소련의 대북지원이었다. 무기 지원보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북한이 소련에 군사기지를 제공한 것이었다. 소련은 자국 함정이 정박할 수 있는 항구 제공과 베트남으로의 비행이 용이한 영공 개방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마침내 소련 함정은 북한의 청진, 나진, 웅기, 원산에 이르는 거의 모든 항구에 자유롭게 기항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은 소련의 캄란만기지 활성화를 위해 북한영공을 통과하는 비행루트를 제공했다. 소련공군의 정보비행과 공격훈련을 위한 북한영공 통과도 허용했다.⁵⁵⁾

중-소의 관계개선은 북한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했을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즉 일찍이 북한은 중국과 소련 사이를 왕래하면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 왔는데, 이제 중소 관계가 개선됨으로써 중소 양국에 부담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새로운 상황이 조성되었다. 또한 1984년 5월 중-하순에 걸친 김일성의

모스크바 방문 전 호요방 총서기가 5월 5일 평양을 방문하였는데, 이러한 양상은 중국과 북한, 소련 간의 관계에 상호이해가 조성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⁵⁶⁾

3. 미·중·소 친밀화와 남북교류 활성화(1983~1985년)

미-중의 화해모드는 1970년대 초반부터 형성되었으나, 확고한 신뢰를 형성하지 못하고 1980년대 초반까지 불안한 관계가 지속되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만문제'로,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원칙에 미국은 동의하는 듯 보였으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지속되었고, 특히 1981년 레이건 정부의 대만정책은 미-중 관계 악화로 번졌다. 하지만 1983년 미-중 군사협력이 공고화되었으며, 1984년 체르넨코의 등장은 미-소간의 관계 개선을 진행시켜, 미중소 관계의 새로운 모습을 탄생시켰다.

아웅산 사건이 발생한 다음해인 1984년 북한은 남한에게 많은 제의를 하였고, 실제 양국간의 관계는 매우 긴밀해 졌다. 하지만 1986년 틱스피리트 훈련을 이유로 남북관계는 경색되게 되었다.

중미간 공동인식에 따라 '72.2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중미간 상해공동성명 발표가 있었으나 대만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중미간 외교관계 수립이 지연되어 79년이 되어 수교를 하게된다. 이후 1979년 12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계기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비살상무기 및 군수품수출 인정 등 군사협력이 강화되었으나, 레이건은 1981년 10월에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축소를 직접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하게 약속하지 않은 채 무기 판매를 계속해 나갔다. 1981년 레이건 행정부의 출범으로 대만에 대한 신무기 공급정책(1981년 12월, 9,700만불 상당 F-5E 전투기 엔진 부품 등

52) 미하일 카피차, "다른 관점에서," 차피치의 《회고록》 p. 21; 오진용, 『김일성시대의 중소와 남북한』, 서울: 나남출판, 2004, p. 148 재인용.
 53) 임강택,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p. 66.
 54) "우리나라 정부와 소련정부 사이의 경제 및 기술적 협조에 관한 협정과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데서 경제기술적 협조를 할 데 대한 협정, 모스크바에서 조인." 『노동신문』 1985년 12월 28일, 3면.
 55) 박중수, 『21세기의 북한과 러시아』, 서울: 오름, 2011, pp. 99~101.

56) 中韓雄維, "중소 관계의 새로운 전개-등소평 체제의 항방과 관련하여." 강석호 엮음, 『80년대의 주변정세 -미중소의 전략적 삼각관계와 한반도의 태풍-』, 서울: 거름, 1985, p. 104.

대만 공급 결정)은 중미관계를 다시 냉각시킨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대(對) 대만 무기판매에 대해 반대를 표명(1982년 3월)하고 대(對)미 관계의 격하를 시사하였다. 1982년 8월 17일 중미 공동성명(일명 '8·17'성명)발표로 양국관계는 재정립의 기반을 구축하고 미국과 중국, 대만 관계의 현실적 해결을 마련하는 계기⁵⁷⁾가 되는 듯하였으나, 1982년 8월 17일 발표한 공동성명은 '무기판매', 곧 실제 무기의 이전에만 적용될 뿐이므로 대만에 대한 무기생산기술 공급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다. 중국은 과거와 달리 진지하게 대소 관계 회복을 고민했다.⁵⁸⁾

1983년 9월 25일부터 5일간 와인버거 미 국방부 장관은 중국을 방문했다. 미국과 중국은 상대국 항구방문을 포함, 미중간의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군사교류를 84년 초부터 시작하는 합의와 최신무기 제공의사를 발표했다.⁵⁹⁾ 최신무기의 제공은 카터 행정부 당시의 군사협력계획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워싱턴은 이와 같은 양보를 하면서 1984년 1월 조자양 수상을 워싱턴에 초청하고 레이건 자신 또한 1984년 4월에 북경을 방문하여 우호를 증진하기에 다다른다.⁶⁰⁾

1984년 마소 간의 화해가 시기가 시작되었다. 1984년 2월 콘스탄틴 체르네프가 제7대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되었다. 1983년까지 미·소 간의 갈등은 격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1983년의 제네바회담 결렬 후에 나타난 긴장의 격화와 군비 경쟁의 가속화가 세계 사람들에게 큰 우려를 안겨 주었다.⁶¹⁾ 하지만 1984년 미국과 소련은 협상을 재개했고, 전 세계 사람들은 이를 환영하였다.⁶²⁾ 1985년 고르바초프의

등장은 마소 화해를 더 확고히 보여주었다. 1985년에 집권한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고 이러한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은 소련의 대외정책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바 고르바초프는 탈냉전적 '새로운 사고'에 의한 대외정책을 전개하였다. 소련은 '신사고'에 기초한 대외정책에 따라 군사주의의 안보개념으로부터 적극 탈피, 외교협상을 통한 군비통제, 지역분쟁결정을 정책경제사회과학기술 등 제측면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전환하였다.⁶³⁾

북한은 1983년 10월 랭군폭파사건을 자행하여 남한 대통령 일행의 암살을 기도한 직후인 1984년 1월 10일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연합회의를 개최하여 미국·한국과의 3자회담 개최, 대미 평화협정 체결, 남북한 간 불가침선언 채택을 제의하는 한편, 3월 30일에는 올림픽 대회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대표단 회담을 제의하였다. 또한 북한은 1984년 9월 8일 북한적십자회를 통하여 한국의 수재민들에게 구호물자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한국정부가 수락함으로써 쌍방 적십자사간에 수재물자의 인도와 인수가 이루어졌다. 이를 계기로 다방면에 걸친 남북대화·접촉이 재개되었다. 1984년 11월 15일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간에 경제분야 회담이 개최되어 1985년 11월까지 5차례 진행되었고, 남북적십자 본회담은 중단 12년 만인 1985년 5월 다시 열려 12월까지 3차례 개최되었다. 특히 1985년 9월 20일에는 151명으로 구성된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이라는 분단 이후 최초의 대규모 인적 교류가 성사되었다, 이와 함께 1985년 7월과 9월에는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접촉이 2차례 이루어졌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주재로 남북체육회담이 한차례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1986년 팀스피리트훈련을 이유로 1986년 1월 20일 모든 남북대화를 거부함으로써 남북대화는 다시 전면 중단되었다.⁶⁴⁾

1981~1985년 시기 동북아의 분위기는 큰 흐름에서 화해와 평화를 지향하고 있다. 1982년 한미일 자유진영의 관계가 공고해 졌으며, 1984년 북중소 사회

57)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동북아2과, 『2013 중국개황』, 서울: 늘품플러스, 2013, pp. 81~82 참고.
 58) 김진환, "레이건이 나카소네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민족21』 2010년 9월호, pp. 78~79.
 59) "와인버거 밝혀 美中共 軍艦방문 합의," 『동아일보』 1983년 9월 30일자, 1면.
 60) 김동성, "중국의 1980년대 외교전략전술과 한반도-국가목표외교원칙외교전략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강석호 엮음, 『80년대의 주변정세 -마중소의 전략적 삼각관계와 한반도의 대명뜨』, 서울: 거름, 1985, p. 64.
 61) 1981년 미국과 소련은 제네바에서 군축회담을 시작했으나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새로운 평화운동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회담은 성과가 없었다. 이에 따라 서독정부는 1983년 11월 이틀간의 격렬한 의회토론을 거쳐 미 핵미사일의 서독 배치를 결정한다. 이에 대해 소련은 제네바 군축회담을 완전히 결렬시켰다. 그레고어 쉴렌 저, 김현성 역, 『빌리 브란트』, 서울: 밋살무니, 2003, p. 258.
 62) 강석호 엮음, 『80년대의 주변정세 -마중소의 전략적 삼각관계와 한반도의 대명뜨』, 서울: 거름, 1985,

p. 237.
 63) 박두복·김복기, 『최신중소관계론』, 서울: 경영문화원, 1991, p. 203.
 64) 정규섭,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 서울: 일신사, 1997, p. 180.

진영의 관계도 상당히 호전되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981년 한·미 관계회복, 1982년 한일관계 급격한 친밀화, 중소의 화해, 1983년 중미 관계개선, 1984년 북·미 관계개선, 북소 협력강화, 미소 군비경쟁 저하, 남북화해와 협력의 시기를 거쳐 1985년 미소의 관계개선까지 양자 간의 관계변화가 그 바탕이 되었다. 이상의 동북아 정세로 볼 때, 아웅산 사건이 발생한 1983년 북한이 고립되어 있었다는 평가와 사건 이후 고립이 가중되었다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IV. 아웅산 사건 이후 북한

1983년 11월 4일 미안마는 아웅산 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을 결론지으면서 북한과의 단교성명을 내었다. 이후 남한은 11월 중순 미국 레이건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을 결의하는 모습을 보인다.⁶⁵⁾ 북한 또한 11월 4일 이후에도 로동신문을 통해 아웅산 사건이 전두환의 자작극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1983년 한해 북한의 전 분야의 사건을 수록한 『조선중앙년감 1984』을 통해 아웅산 사건에 대한 미안마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비망록’이란 부록을 개설하여 “탕군폭발사건에 대한 버마당국의 <공판>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으로 10여장에 걸쳐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⁶⁶⁾ 실제 북한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첫째, 아웅산 사건의 원인과 영향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고립여부이다. 북한은 1983년 아웅산 사건을 이유로 4개 국가로부터 단교조치를 당하였고, 남한정부는 단교조치를 시행한 국가들(미안마, 서사모

아, 코스타리카공화국, 코모로회교연방공화국)에 대해 외무부 성명을 통해 환영하였다.⁶⁷⁾ 단교조치를 시행한 4개 국가는 모두 70년대 중반 북한과 수교한 나라로, 미안마를 제외하고는 교류가 거의 없었다.⁶⁸⁾ 북한의 대외관계사를 정리한 출판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1·2』에는 수교를 한 사실조차 언급되지 않았다.⁶⁹⁾ 그리고 4개국 중의 하나인 코모로회교연방공화국은 1989년 북한과 국교를 재개한다.⁷⁰⁾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제재에 적극 동참했던 일본도 1984년 북한과의 화해를 적극 추진하여 한국정부를 분노케 하였다.⁷¹⁾ 무엇보다 아웅산 사건으로 남북한의 대외관계 경쟁에서 남한이 북한을 앞지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다.⁷²⁾ 이 글에 2장에서 언급했듯이 남한은 사건이전부터 수교국 경쟁에서 북한을 앞질러 왔다. 또한 사건 이후, 남한의 수교국이 크게 증가하거나, 북한의 수교국이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다.

65)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회연설(1983년 11월 12일 서울).” 외무부 국제기구 조약국 외교사료과, 『대한민국 외교연표』, 서울: 외무부 국제기구 조약국 외교사료과, 1984, p. 223; “전두환 대한민국 대통령과 로널드 레이건 미합중국 대통령간의 공동성명서(1983년 11월 14일 서울).” 외무부 국제기구 조약국 외교사료과, 『대한민국 외교연표』, 서울: 외무부 국제기구 조약국 외교사료과, 1984, p. 243.
66)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84』,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4, pp. 626-633 참조.

67)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남북한 비교 도해』, 서울: 국토통일원, 1984, p. 69; 외무부 국제기구 조약국 외교사료과, 『대한민국 외교연표』, 서울: 외무부 국제기구 조약국 외교사료과, 1984, pp. 204-206.
68) 4개의 국가는 각각 다음과 같이 수교 하였다. 미안마(1975년 5월 16일), 서사모아(1978년 6월 28일), 코스타리카공화국(1974년 2월 10일), 코모로회교연방공화국(1975년 11월 3일).
69)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263;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pp. 297-300.
70) “북한은 코모로회교연방공화국(북한말: 꼬모르)과 1975년 11월 3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나, 1983년 12월 미안마 아웅산폭발사건에 대한 응징조치로서 단교하였다가 1989년 11월 국교를 재개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03467&cid=1597&categoryId=1597> (검색일: 2014.7.2).
71) 빅터 D. 차 지음, 위의 책, pp. 292-294.
72) 다음과 같은 기사는 아웅산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분석 중의 하나이다. “아웅산 사건은 남북한의 외교관계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코스타리카, 코모로, 서사모아가 버마에 이어 외교를 단절하고 호주, 일본, 미국 등 25개국이 규탄성명을 발표했으며 이탈리아, 비레인, 태국 등 21개국이 인적·물적 교류 제한을 밝혔다. 한국은 1983년 말 수교국 수에서 120개국 대 102개국으로 북한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김정형, “김정형 근현대사 이야기-버마 아웅산 폭발사건.” News Maker 2012년 11월 5일, <http://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660> (검색일: 2014.7.4).

< 표 3 > 남북한의 수교현황(1982~1984)

(단위 : 수교국 수)

	1982			1983			1984		
	한국	북한	동시	한국	북한	동시	한국	북한	동시
계	116	105	68	119	101	65	121	102	67
아주	24	23	17	25	21	16	26	21	16
미주	30	12	11	31	11	10	31	11	10
구주	20	18	9	21	18	9	21	18	9
중동	15	12	7	15	12	7	15	12	7
아프리카	27	40	24	27	39	23	28	40	25

출처 :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검색일: 2013.8.1).

아웅산 사건으로 북한이 세계 각국에서 규탄을 당했다는 것은 사실이나, 국제 무대에서 고립되었다는 평가는 무리가 따른다. 1984년 중국소련과 우호적인 관계를 보여주며, 3자회담으로 미국과도 물꼬를 트는 듯한 분위기를 갖고, 남북한 교류도 가장 활발해 지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적인 분야이다. 아웅산 사건으로 세계 여러 나라는 규탄성명과 함께,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실제 아웅산 사건이 발생한 전후의 북한의 수출입은 크게 부침을 겪지 않고, 소폭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표 4>참조).

< 표 4 > 북한의 수출과 수입(1981~198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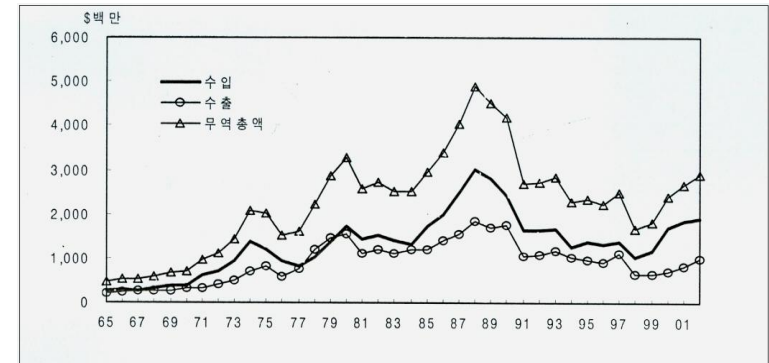
구분	1981	1982	1983	1984	1985
수출	6.6	6.8	10.1	13.6	15.7
수입	9.0	8.4	10.3	14.4	18.8
수지	2.4	1.6	0.2	0.8	3.1

출처 :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http://kosis.kr/bukhan/index.jsp>; 홍순직, "북한 경제 구조 변화에 관한 실증 연구 : 구조 변화 요인 분석과 전망."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p. 32.

1981~1984년 시기는 다른 시기에 비해 북한의 대외무역이 상당히 침체된 시기로, 1985년부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그림 1> 참조). 1985년 가파른

성장에 대해 북-소 경제관계가 커다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임강택은 1985~1989년 기간이 구소련과의 정치적 밀착한 시기로, 북한의 대서방 무역은 1984년 9억 3천 5백만 달러에서 1989년에는 12억 3천만 달러로 32% 증가한데 반하여, 구소련과의 무역은 1984년 8억 4천만 달러에서 1989년에는 23억 7천만 달러로 183%나 증가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⁷³⁾

< 그림 1 > 북한의 수출입추이



출처 : 이영훈, "북한 경제발전전략의 지속과 변화." 북한연구학회, 『북한의 경제』, 서울 : 경인문화사, 2006, p. 115.

아웅산 사건의 전후시기 북한이 대외무역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아웅산 사건으로 대외무역의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몇몇 국가들의 단교나 여러 국가들의 경제제재가 실제적으로는 미비했던 것인지, 소련의 경제협력력이 이를 넘어서는 보완을 한 것인지 자세한 사항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1985년부터 가파른 대외무역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웅산 사건으로 인한 몇 개 국가와의 단교나 경제제재가 북한경제에 타격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73) 임강택,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8, pp. 70~71.

셋째, 국방비의 변화여부이다. 아웅산 사건은 남북한의 전쟁을 초래할 만큼 중대한 사건으로 한·미·일 안보동맹을 공고히 하였으며, 레이건의 '힘의 의한 평화'를 강조하게 하였다. 하지만 아웅산 사건 이후 남북한의 국방비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표 5>참조), 남한의 국방비는 1983년부터 감소하여 1985년 다시 증가하였지만,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북한의 국방비는 1983년부터 동일하며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표 5 > 남북한 연도별 국방비

(단위: 억 달러)

년도	남한			북한(공식발표자료 기준)		
	국방비	GNI대비 국방비(%)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국방비	GNI대비 국방비(%)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1981	39.6	5.47	33.6	17	12.5	16.2
1982	42.66	5.51	33.5	15.3	10.57	14.6
1983	42.18	4.91	31.4	16.2	11	14.7
1984	41	4.32	29.6	16.2	10.57	14.6
1985	42.4	4.3	29.4	16.2	9.3	14.4

출처 : 세종연구소, "통계로 보는 남북한 변화상." 통계청, 2011, p. 151.

1980년대 중반, 남한은 미국으로부터,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상당한 양과 종류의 최신 군사무기를 들여온다. 남한은 1981년까지 한국군 현대화계획(1차 율곡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남북한 간의 군사력 격차가 크게 좁아지지 않자, 1982~1986년 간 2차 전력증강 계획(2차 율곡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기간 중의 무기이전을 통하여 한국군은 전차 및 대전차 장비와 공군력이 크게 개선되었다. 1981~1985년간 한국은 총 무기 수입액 19억 6,000만\$ 중 19억\$을 미국으로부터 헬기, APC, 자주포 운반차, 신형 M-48A5전차, 개조된 M-48전차, 스티어호크·메브릭 미사일과 장갑차 등의 무기 구입에 사용하였다.⁷⁴⁾

< 표 6 > 1980년대에 북한이 소련에서 도입한 주요 무기체계

품명	종류	주문연도	인도연도	수량
MIG-23	전투기	1984	1985~1986	50
AA-7 Apex	공대공미사일	1984	1985~1986	180
MI-14 Haze	헬기	1985	1986	8
MI-17 Hip-H	헬기	1985	1986	24
MI-24(Hind-1)	헬기	1985	1985~1987	45
MI-8	헬기	1985	1986	24

출처 : SIPRI, SIPRI Yearbook: 1985~1987를 재구성; 선종률, "남한의 군비경쟁 양상 변화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 73.

1984년 미국-한국, 소련-북한은 군사적으로 눈에 띄는 협력을 구축하게 된다. 미국은 안보적 가치로 한국을 ('중요한 이해관계지역(a significant interest area)'에서 '사할적 이해관계지역(vital interest area)') 격상시켰으며, 소련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 하고, 군사협력을 강화하였다. 이 시기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사건과 아웅산 사건은 소련과 북한 모두에게 협력이 강화되도록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⁷⁵⁾ 1983년 일어난 두 사건은 소련과 군사경쟁을 추구했던 레이건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 해주는 좋은 구실이 되었을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한·미·일 안보동맹의 공고화는 이를 위기로 느낀 소련의 지원을 얻어냄으로써 인해 군사적, 경제적 면에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셈이 되었다. 따라서 아웅산 사건 이후 북한의 대외관계와 경제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찾기 어려우며, 국방부분의 변화는 오히려 북한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74) 국방부, 『율곡사업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1994), pp. 31~32; 선종률, "남한의 군비경쟁 양상 변화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 70 재인용.

75) 김용호, 『현대북한의외교론』, 서울: 오름, 1996, p. 215.

V. 결론

본 논문은 아웅산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아웅산 사건의 전말과, 발생원인, 그 당시의 동북아 정세, 그리고 실제 북한이 받은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웅산 사건에 대한 기존의 평가들이 다소 수정되어야 함을 발견하였으며, 1980년대 초반 역동적인 동북아 정세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아웅산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한 기존의 추론은 세 가지로 첫째, 북한 내부의 강온파의 갈등, 둘째, 전두환 정권의 비민주적 설립 배경, 셋째는 1980년대 동북아 정세와 남한의 경제 성장이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전두환 정권의 성립 특징이 아웅산 사건 발생의 가장 타당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실제 3자회담 제의는 아웅산 사건 하루 전인 10월 8일 중국을 통해 전달된 사실 또한 전두환 정권을 배제하고자 한 북한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남한 학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으며 외국 학자의 주장이 존재하였다.

1980년대 초반 동북아 정세는 아웅산 사건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였다. 즉, 중국이 미국과 일본과 관계를 개선한 것과, 남한이 북방외교에 주력하게 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고립의 압박을 느끼고, 이로 인해 아웅산 사건을 저지르지만, 오히려 사건의 실패와 국제적인 비난으로 고립이 심각해 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1980년대 초반이라는 기간동안, 양자간, 다자간, 진영간의 모습을 면밀히 살펴 본 결과 1981~1985년 시기 동북아의 분위기는 큰 흐름에서 화해와 평화를 지향하였다. 1982년 한·미·일 자유진영의 관계가 공고해 졌으며, 1984년 북·중·소 사회진영의 관계도 상당히 호전되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982년 한일관계 급격한 친밀화, 중·소의 화해, 1983년 중미 관계개선, 1984년 북미 관계개선, 북·소 협력강화, 미·소 군비경쟁 저하, 남북 화해와 협력의 시기를 거쳐 1985년 미·소의 관계개선까지 진영내의 갈등 해소와 진영간의 화해도 이루어 졌다. 따라서 1980년대 초반 북한이 동북아 정세에

서 고립적 상황에 놓여 있다는 평가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아웅산 사건 이후 북한이 실질적으로 받은 영향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외교와 무역에서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기존의 평가와 달리 대외관계와 경제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찾기 어려웠으며, 국방부분의 변화는 오히려 북한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아웅산 사건으로 북한이 남북한의 체제경쟁에서 뒤처지게 되었다는 평가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1983년 아웅산 사건은 분명 남한과 국제사회에 충격적인 소식이었음이 틀림없다. 아웅산 사건을 통해 북한이 의도했던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전히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에게 진영 간의 화해는 받아드리기 힘들 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랜 냉전의 시대를 마치고, 화해를 추구하는 동북아의 큰 흐름 속에서 그 방향을 바꾸지 못했다.

참고문헌

고나무, 『아직 살아있는 자 전두환』, 경기: 북콤마, 2013.

김동성, “중국의 1980년대 외교전략전술과 한반도-국가목표외교원칙외교전략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강석호 엮음, 『80년대의 주변정세 -미중소의 전략적 삼각관계와 한반도의 데탕트-』, 서울: 거름, 1985.

김진환, “레이건이 나카소네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민족21』 2010년 9월호.

박순성, “남북한 경제의 비교: ‘기원’에서 ‘위기 이후’까지,” 『社會科學論集』 제33집, 2003.

상·후쿠오 저, 남현욱 옮김, 『아웅산·피의 일요일』, 서울: 병학사, 19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60년사』, 서울: 국군인쇄창, 2013.

국토통일원 교육홍보실, 『시사자료 통일안보교육 제10집(1983. 12)』, 서울: 국토통일원, 1983.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남북한 비교 도해』, 서울: 국토통일원, 1984.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 서울: 백산서당, 2003.

김용호, 『현대북한외교론』, 서울: 오름, 1996.

김정형, “김정형 근현대사 이야기-버마 아웅산 폭발사건.” *News Maker*, 2012년 11월 5일.

김홍규, “중미관계.” 한국국제정치학회 중국분과 편, 『중국-현대국제관계』, 서울: 오름, 2008.

노만 램, “1980년대 동아시아 정세와 한미 안보관계,” 강석호 엮음, 『80년대의 주변정세 -미중소의 전략적 삼각관계와 한반도의 데탕트-』, 서울: 거름, 1985.

라종일, 『아웅산 테러리스트 강민철』, 서울: 창비, 2013.

그레고어 설젠 저, 김현성 역, 『빌리 브란트』, 서울: 빗살무늬, 2003.

마고사키 우케루 지음양기호 옮김,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서울: 메디치미디어, 2013.

박두복·김복기, 『최신중소관계론』, 서울: 경영문화원, 1991.

박영대, “한국의 1980년대 초반 외채위기 극복요인에 관한 연구: ‘신냉전’의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박종수, 『21세기의 북한과 러시아』, 서울: 오름, 2011.

박창석, 『아웅산 다시 보기』, 서울: 백산출판사, 2013.

박철언,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 서울: 랜덤하우스중앙, 2005.

빅터 D. 차 지음, 김일영문순보 옮김, 『적대적 제휴: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체제』,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4.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선종률, “남한의 군비경쟁 양상 변화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세종연구소, “통계로 보는 남북한 변화상.” 통계청, 2011.

손기섭, “한일 안보경협 외교의 정책결정: 1981-1983년 일본의 대한국 정부차관.” 『國際政治論叢』 제49집 1호, 2009.

오진용, 『김일성시대의 중소와 남북한』, 서울: 나남출판, 2004.

외무부 국제기구 조약국 외교사료과, 『대한민국 외교연표』. 서울: 외무부 국제기구 조약국 외교사료과, 1984.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동북아2과, 『2013 중국개황』, 서울: 늘품플러스, 2013.

윤해수, 『북한국제외교론』, 서울: 한울, 2000.

伊豆見元, “최근의 북한 정세 - 두 개의 얼굴인가, 두 개의 머리인가.” 강석호 엮음, 『80년대의 주변정세 -미중소의 전략적 삼각관계와 한반도의 데탕트-』, 서울: 거름, 1985.

이영훈, “북한 경제발전전략의 지속과 변화.” 북한연구학회, 『북한의 경제』, 서울: 경인문화사, 2006.

이정남, “중미관계.” 한국국제정치학회 중국분과 편, 『중국-현대국제관계』, 서울: 오름, 2008.

임강택,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장세동, 『역사의 빛과 그림자(버마 아웅산국립묘지 폭탄테러사건)』, 서울: 맑은샘, 2013.

정규섭,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 서울: 일신사, 1997.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존 몬조, “한반도에서의 남북한 관계 -북한의 3자회담 제안에 대한 미국의 평가.” 강석호 엮음, 『80년대의 주변정세 -미중소의 전략적 삼각관계와 한반도의 데탕트-』, 서울: 거름, 1985.

中嶋嶺雄, “중소 관계의 새로운 전개-등소평 체제의 항방과 관련하여.” 강석호 엮음, 『80년대의 주변정세 -미중소의 전략적 삼각관계와 한반도의 데탕트-』, 서울: 거름, 1985.

척 다운스 지음, 송승중 옮김, 『북한의 협상전략』, 과주: 한울, 1999.

최명해, 『중국·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서울: 오름, 2009.

통일부, 『2004 북한개요』, 서울: 웃고문화사, 2003.

프랑소와 주아이요 저, 李昌訓 譯, 『중국의 대외정책』, 서울: 탐구당, 1989.

허문영, 『북한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 엘리트』, 서울: 선인, 2007.
 홍순직, “북한 경제 구조 변화에 관한 실증 연구 : 구조 변화 요인 분석과 전망.”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황수현, 『한민동맹 갈등사 -70년대를 중심으로』, 경기: 한국학술정보(주), 2011.

“다큐극장-아웅산 그리고 2013.” 『KBS 1』 2013년 5월 11일 방영.
 『경향신문』 .
 『동아일보』 .
 『로동신문』 .
 『매일경제』 .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ABSTRACT

‘Aung San event’ occurrence and impact
 : Situation in the early 1980s, North Korea and Northeast Asia

Park, Ah-Reum(Dongkook University)

The terrorist explosion at Aung San Cemetery in Myanmar, which occurred on October 9, 1983, reflected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in the Cold War. In this paper, the content of Aung San events, causes, and the situation at the time in Northeast Asia, and the actual impact of North Korea was analyzed.

The most relevant analysis suggested that the cause of the Aung San event was the elimination by North Korea of the Chun Doo-hwan regime. The 1981-1985 period in the Northeast showed a large flow of reconciliation and peace. Therefore evaluation of the Aung San event as an inevitable event is not appropriate. After the Aung San event, it is difficult to find evidence that North Korean foreign relations and foreign trade, had any benefit from the military part of North Korea.

The Aung San case as a case study suggests that existing understanding should be slightly modified to show that in the early 1980s, specifically to the dynamic situation in Northeast Asia, further understanding has been achieved.

Keywords : Terrorist Explosion at Aung San Cemetery, Traingular Intra-alliance, Kim Jung-il, Chun Doo-whan, North Korean Terrorism.

투고일 : 2014년 10월 01일, 심사일 : 2014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12월 4일